

여수 봉두마을서도 송전탑 건설 강력 반대

정의당 천호선 대표·주민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마을 앞 추가 설치공사 중단 요구...한전선 거부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여수시 읍촌면 봉두마을에서 정부와 한전의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 대표와 김제남 의원은 27일 봉두마을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한전은 봉두마을 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봉두마을은 현재 80여가구 200여명의 광산 김씨와 장흥 위씨가 오순도순 아름답게 살아가는 집성촌이다. 그러나 마을을 빙 둘러싼 25기의 대형 철타들이 산허리와 마을 주변을 휘감고 있으며, 한전 측은 최근 마을 앞에 대형 철타 6기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읍촌면 봉두마을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65) 위원장은 "지난 70년대 초부터 송전탑 19기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또 추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암과 백혈병 등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여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들은 주민 가운데 30여명이 암과 백혈병으로 이미 숨지거나 현재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미소 폐사, 염소의 사산 및 기형 등이 발생하는 등 주변 마을에 비해 사람·가축의 질병 발생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설치된 송전탑(345kV, 154kV) 19기의 원거리 이전, 주민건강을 위한 역조사, 현 재 공사 중인 154kV 6기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요구가 어렵다면 마을 전체의 집단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최근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요구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154kV 여천2~읍촌 송전선로 건설사업(20.1km·송전탑 45기 추가 건설)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순천시의회, 가로등 야간 불시 현장감사

도건위, 행정사무감사 눈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인근)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순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등 점등 및 불량률, 조도 확인을 위해 야간에 불시 현장감사(사진)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인근 위원장 등은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쳐 왕조초교에서 삼성출판사 구간 등에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걸어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등 여부와 횡단보도 조명등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김인근 위원장은 "LED등 조명의 밝기 조도, 불량률을 직접 측정했다"며 "취약지구 및 우범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데 가로등, 보안등, 조명등의 역할이 커 야간감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yjy@

목포서 세라믹산업 발전방안 포럼 개최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학계 인사 등 200여명 참석

순천에 있는 (재)전남테크노파크는 27일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공동으로 2013 KOREA 세라믹동반성장포럼 총회를 2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내 세라믹기업 100여곳과 학계, 연구소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다.

1, 2부로 나뉘어 열린 포럼에는 세라믹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세라믹기업의 현상대로 원포인트 기술지도를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기술전수 등으로 진행됐다.

초청 강연자는 일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AIST)의 야마다 도요아키와 타니 이치 박사 등 비산화물 전문가다.

또 올해 한 해 추진한 성과 발표와 그 결과를 세라믹 산업계 전체가 공유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장

책이나 권역별 소모임도 마련된다.

이 밖에 정부의 첨단세라믹 산업 발전방안과 산학연 전문가 토론, 질의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

세라믹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등 세라믹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이 장관 표창을 받는다.

홍종희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세라믹은 미래 핵심 주력 소재로 전남의 전략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03년 12월 생물, 신소재, 조선, 문화관광 등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보육, 기술지원,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필수기자bun@kwangju.co.kr



"곡성의 매력, 앵글에 담았어요"

군, 광주송정공원에서 내년 1월까지 관광사진 전시회

곡성군은 27일 "곡성의 매력을 사진으로 뽐내는 관광사진 전시회를 오는 1월18일까지 광주도시철도 1호선 광주송정공원에서 개최중이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시회 작품은 '2012 곡성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중 관광 곡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우수 작품 20여점이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경 속의 섬진강기차마을, 기적을 울리며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 등 겨울 감성을 자극

하는 작품들이다.

최창호 광주 송정공원원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 곡성도 홍보하고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군의 자연경관 및 관광지를 담은 세계적 사진 작품들을 모아 광주 등 도시권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여수시민회관 울들어 5만6000명 다녀가

지역대표 문화시설 자리매김

여수시민회관(사진)이 지난 2012년 197건의 대관실적과 함께 10만여 명이 이용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91건의 공연에 5만6000여명의 관객을 수용,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써 역할을 하고있다.

최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학교공연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연이 잇따라 열리면서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붐비고 있다.

올해에만 55개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20여개 학교가 시민회관에서 동아리 및 방과 후 활동 등을 갖는 등 '주민밀착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1987년 여수시 광무동에 지어진 시민회관은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며 여수 현대사의 한 부분을 장식했다. 지상3층·지하1층 규모로 960석의 객석을 갖춘 시민회관은 1993년 개관한 전남문화회관과 더불어 문화시설의 한 축을 맡아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활기찾는 순창 농공단지

4개 공단, 7개 업체 조만간 가동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란불

순창군내 농공단지에 들어설 7개 업체가 조만간 공장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27일 "가남·풍산·인계·쌍암 등 4곳의 농공단지에 맥주업체, 생수업체, 식품업체 등 업체 7곳이 조만간 공장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계농공단지에는 고급 맥주를 생산할 장애프레프트가 건축중이고, 쌍암농공단지에는 나노버블수를 생산할 예정인 엔앤비가 역시 공장 가동 준비에 한창이다.

또 풍산농공단지에는 뉴-라이프 제2공장을 지어 칫솔을 생산하고, 시아스도 고추장 등 장류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에스와이산업은 패널생산

공장 가동을 앞두고 사원을 모집중이며, 한국씨엔티는 공장 증설을 앞두고 설계중이다.

지난 26일 우리제관(주)이 인계농공단지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사진) 등 잇따른 업체 유치가 지역경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우리제관(주)는 고추장과 된장을 담는 금속캔을 생산하며, 장류생산 대기업인 대상과 사조산업이 군내에 공장이 있어 물류비용을 낮춰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다며 순창을 선택했다.

한편 가남농공단지에는 청정원 순창고추장의 대명사로 알려진 '대상'이 입주해 있고, 인계농공단지에는 '사조'가 동지를 들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국제교류' 활발

국제화추진위 올 결산...향후 추진 방향·과제 모색

중·일 자매·우호 도시와 결연 네트워크 구축 성과

정읍시가 최근 중국 서주시 및 일본 나리타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는 등 국제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시는 27일 '2013년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갖고 2013년도 국제교류 결산과 함께 2014년도 국제교류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제교류 성과로 '일본 나리타시 큰북축제 농악단 참가', '국의 자매도시 확대를 위한 현지 실사단 파견' 등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농악단'은

2013년 일본 나리타시 큰북 축제에 참가해 나리타시와의 우호를 돈독히 함은 물론 정읍농악의 우수성을 일본에까지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자매도시 확대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과 유사한 성격의 혁명인 '태평천국혁명'의 진원지인 중국 남경시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함으로써 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국제교류 추진 사업으로 중국 남경시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행사 초청', 중국 서주시 및 일본 나리타시 '중·고등학교 학생 교류', 중국 서주시 '예술단 상호교류' 등을 제시했다.

또 전북과학대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 대학생과 노인 간 민간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시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이후 국제화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발굴 등 정읍시의 국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가 국외도시와 우호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정읍경찰, 폭설·결빙 취약지 안전점검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7일 정읍시청 등 유관기관과 겨울철 폭설·결빙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유관기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적 집중대설

로 차량 고립이 빈발하고, 대설과 강풍을 동반한 설해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기상특보 발표에 따라 교통안전대책반을 운영 하는 한편 폭설 등 기상악화시에는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귀농귀촌협, '사랑나눔 김장김치' 행사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협의회장 김한성)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13년 사랑 나눔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들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소외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추 1500포기를 버무려 읍면에서 선정한 소외계층 150세대에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귀농귀촌협의회 임원과 읍면 지회장, 귀농귀촌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는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합한마당,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집들이, 문화 동아리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정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내달 20일까지 연장

정읍시는 27일 "201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와 관련, 일부 제도변경 등으로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엔 지원되는 비료는 작목별, 면적별로 신청해야하며 전체 신청물량에 따라 개인당 지원물

량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 서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인상

전주시는 27일 "오래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부대 복지시설, 조경시

설물 보수, 장애인·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에 쓸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주·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하안설원, 무주 설천면 지전마을

27일 오전 8시20분을 기해 전북 일부 산간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농촌마을은 하안 설원으로 변했다. 이날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지전마을은 평화스러운 전형적인 시골 모습을 보였다.

(무주군청 제공)